

전일동향

전일대비 7.00원 하락한 1,490.50원에 마감

14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,503.40(15:30 기준) 3.40원 하락한 1,500.0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환율은 주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대거 출회가 환율 하단을 낮추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상승을 제한하며 전일대비 7.00원 하락한 1,490.50원에 증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4.2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20.38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500.00	1500.50	1486.30	1490.50	1492.20
	엔화	917.26	923.61	915.85	920.38	-
	유로화	1695.71	1710.58	1693.30	1697.49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6	-3.22	-7.67	-15.21
	결제환율(수입)	-0.33	-2.12	-5.5	-11.63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美 물가 안도감에...1,48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9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93.00, 15:30 기준) 대비 3.20 하락한 1,488.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국의 물가 안도감에 따른 달러 약세와 매도 우위 수급에 하락 전망한다. 미국의 6월 CPI(소비자물가지수)는 전월대비 -0.4%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(-0.1%)를 크게 하회했고,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에 미 연준의 긴축 우려는 완화되었다. 이에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으며 시장 전반에 위험선호 심리가 유입되어 금일 원/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여기에 대내 수급 측면에서 국내 수출 대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 경계감과 국내 증시 조정에 따른 외국인 주식 순매도 약화가 더해지며 금일 환율 하단을 더욱 낮출 수 있다. 또한, 익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한-미 금리차 축소 등도 환율 하락 기대로 이어질 전망이다.

다만, 수입업체 결제 및 달러 저가 매수 수요와 간밤 미-이란의 재충돌에 따른 유가 상승은 환율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81.00 ~ 1494.0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9565.08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2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52508.27, +9.63p(+0.02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10.43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4431 억원